

# 고려의 양택춘묘지 (高麗의 梁宅椿墓誌)

許 興 植

<慶北大學校 教授>

目 次	
머리말	3. 몇가지 주목할 사실
1. 全文의 判讀	맺 음 말
2. 內容의 檢討	

## 머 리 말

고려시대의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사서인 고려사 고려사절요를 위시하여 일차 사료인 문집(文集)·금석문(金石文) 등은 기본사료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금석문(金石文)은 문집(文集)이나 사서(史書)에 비하여 새로운 자료로서 끊임없이 증가되어 왔다. 특히 이 가운데 지표(地表)에 세운 비문(碑文)은 새로 발견되는 예가 적으나 땅속에 묻어 놓은 관인(官人)의 생애(生涯)를 수록한 묘지(墓誌)는 계속 그 수가 증가되고 있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까지 고려의 수도이었던 개경부근에서 주로 발견되어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장서각(藏書閣)에 보관되었다가 이난영선생(李蘭暎先生)이 편집한 한국금석문(韓國金石文) 추보(追補)에 수록된 바 있다.<sup>1)</sup> 오늘날 경기도 북부일대에 주로 산재한 고려의 묘지(墓地)는 임진(壬辰)·병자(丙子)의 양대전란(兩大戰亂)이 끝난 다음에 황폐한 선영(先塋)을 찾으려고 타인(他人)의 묘(墓)를 헤치면서 발견되었다는 사례가 있으나<sup>2)</sup> 그 체계적인 발굴보고는 어려웠다. 다만 일제시대에 주로 수집된 묘지(墓地)의 발견 경위를 알 수 있다면, 당시 전래 유물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의 경기에 해당하는 개경의 주위에는 관인(官人)의 무덤이 조성되었으며, 오늘날 이 부근은 분단된 경계선이 지나고 있으므로 오히려 잘 보존되고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고려의 묘지는 새로 발견되어 학술논문으로 보고되거나 족보(族譜)에 판독하여 수록된 예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고려 후기 관인(官人)이었던 양택춘(梁宅椿)의 묘지를 새로운 예로서 소개하고 고려사에 실리지 않은 인물을 통하여 고려사회의 일면을 살피고자 한다.

1) 李蘭暎 《韓國金石文追補》 中央大出版部 1968.

2) 安鼎福 《雜同散異》(亞細亞文化社 影印, 4. p.266)

## 1. 전문(全文)의 독(讀)

양택춘묘지(梁宅椿墓誌)는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 유물카드에 의하면 1974년 9월 13일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東灘面) 신리산(新里山) 65번지(番地)에서 발견되었다 한다. 시저(匙箸)에 대한 논문(論文)에서 이 묘지와 함께 발굴된 장소가 알려지게 되었으나<sup>3)</sup> 전문(全文)은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필자는 1984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이난영선생(李蘭映先生)의 도움으로 국립박물관에 보존된 이 묘지를 직접 살펴보고 서울대학교에 보관된 탁본(拓本)을 대조하면서 전문(全文)을 필독할 수 있었다.

묘지(墓誌)는 흑회색(黑灰色)의 수성암(水成岩)에 가로 세로 두께는 각각 57.5×37.5×4.5 cm이다. 묘지문(墓誌文)의 사각형 둘레에는 문양이 장식되었고 상하단(上下端)은 운문(雲文)으로 좌우단(左右端)에는 운문(雲文)으로 매우 품위있게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범어(梵語)로 진언(眞言)을 새겼고 그 아래 한자(漢字)가 적혀있으나 같은 내용인지 필자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서체(書體)는 전형적인 해서(楷書)이며, 고려중기 탄연(坦然)의 글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직화된 구양순체(區陽詢體)에서 벗어나 안진경체(顔眞卿體)와 왕의지체(王羲之體) 등 곡선을 가미하면서 부드러워진 당시의 서체(書體)를 잘 반영하며, 매우 품격이 있다.

묘지(墓誌)의 내용은 풍화되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자획(字劃)을 검토하여 거의 전문(全文)을 판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판독을 위하여 필자가 판독하기 어려웠던 글자에 상점(上點)을 더하고 종서(縱書)를 횡서(橫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公姓梁諱宅椿生大定十二年壬辰其先鷄林金氏後徙帶  
(공성양휘택춘생대정십이년임진기선계임김씨후사대)

方郡革爲梁年垂耳順調溫水郡監務初筮仕云過八九玉  
(방군혁위양년수이순조온수군감무초서사운과팔구옥)

堂  
(당)

口加一九紅其腰大晚見榮人間安有是哉以是知命退居  
(구가일구홍기요대만견영인간안유시재이시지명퇴거)

無干祿意及匡烈崔公怡創禪源社棟一代宗匠主盟而公  
(무간록의급광열최공이창선원사동일대종장주맹이공)

長子安其公倡其選迺爲禪師遙住斷俗寺皆讓不受以  
(장자안기공창기선내작위선사요주단속사개양불수이)

3) 李蘭映 <韓國匙箸의 形式分類> 《歷史學報》 67, 1965, pp.129~130.

4) 둘째 행의 19번째 글자 云은 年을, 그리고 셋째 행의 첫글자 口는 又의 誤刻이라 생각된다.

子故召公爲左右衛錄事參軍事令食慶禧官副使祿公年  
(자고소공위좌우록사참군사령식경희관복사록공년)

已七十餘矣又除戶部員外郎賜紫金魚袋仍祿之令上相  
(이칠십여의우서호부원의랑사자금어대잉록지령상상)

崔公沆幹蠱當國移授壽安官副使又移授興王都監又秦  
(최공항간고당국이수수안관부사우이수홍왕도감우진)

聞  
(문)

終身食祿尋拜爲朝請大夫禮賓卿致仕公平生不妄言矯  
(종신식록심배위조청대부례빈향치사공평생불망언교)

行寬厚長者也善說古今事如持掌齋晨不再食能飲不亂  
(행관후장자야선설고금사여지장제신부재식능음부란)

能碁不賭客至則或飲且碁去則讀經教未嘗以世事爲懷  
(능기부도객지즉혹음차기거즉독경교미상이세사위회)

初  
(초)

適內侍金脩之女生二子皆剃度長曰天英令改爲安其次  
(적내시김수지여생이자개체도장왈천영령개위안기차)

曰淸  
(왈청)

裕一鉢雲遊金氏沒又適別將裴氏女生三子曰行淵出家  
(유일발운유김씨몰우적별장배씨여생삼자왈행연출가)

爲  
(위)

三重住牛頭寺曰靖道場庫判官曰彌隊正皆年幼而達寔  
(삼중주우두사왈정도장고판관왈필대정개년유이달식)

由  
(유)

長子安其公之蔭也甲寅夏四月七日病革請僧唱念臨絕  
(장자안기공지음야갑인하사월칠일병혁청승장념임절)

猶  
(유)

諷佛語呬菩薩名如入睡眠脩然右脇而逝時年八十三也  
(풍불어승보살명여입수면수연우협이서시년팔십삼야)

其公  
(기공)

비읍봉체욕화수골시년육월십사일장우수양산지록인  
(悲泣奉體浴火收骨是年六月十四日葬于水陽山之麓因)

囑  
(촉)

予略誌之銘曰  
(여략지지명왈)

年八十 命始通 祿于第 腰卽紉 周呂尙 漢千秋  
(년팔십 명시통 록우제 요즉주 주여상 한천추)

時已遠 跡相伴 法玉生 淨信家 誰抱送 老釋迦  
(시이원 적상반 법옥생 정신가 수포송 노석가)

公之榮 亦倚此 奇奇哉 有是子  
(공지영 역의차 기기재 유시자)

甲寅六月 曰將仕郎試尙書禮部郎中國學直講知制  
(갑인육월 왈장사랑시상서예부랑중국학직강지제)

誥賜紫金魚袋金坵  
(고사자금어대김구 )

陰記  
(음기)

上品上主眞言

(상품상주진언)

六字大明眞言

(육자대명진언)

寶樓閣眞言

(보루각진언)

決定往生淨土呪

(결정왕생정토주)

이상과 같이 1행(行)마다 23~25자(字)씩 수록되어 한 글자의 크기는 거의 같으며 좌우(左右)에 행(行)을 맞추지 않고 정서(正書)하였으므로 지면(誌面)의 글자 배열이 더욱 부드럽게 느껴진다. 다만 전면(前面)의 마지막 행(行)은 매우 작은 글씨로 지문(誌文)을 쓴 시기와 찬자(撰者)를 밝혔으므로 다른 행(行)과 다르다. 이면(裏面)(음기(陰記))의 범어(梵語)는 수록하지 못했으나 한자(漢字)로 쓴 부분은 역시 전면(前面)과 같은 글씨체로 단정(端正)한 느낌을 준다.

## 2. 내용(內容)의 검토(檢討)

본묘지의 내용은 다른 묘지의 서술형태에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성명(姓名)과 본관(本貫), 관력(官歷), 인품(人品), 기호(嗜好), 처자(妻子), 임종(臨終)의 태도 생몰연대(生沒年代), 장법(葬法), 장지(葬地) 등이 있고, 끝에 생애(生涯)를 운문(韻文)으로 미괄(尾括)한 명(銘)을 신고 맨 끝에 작성(作成)시기와 찬자(撰者)를 밝힌 점도 다른 묘지의 서술형식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다만 주인공(主人公)의 사조(四祖)가 빠졌고 명(銘)을 반언(半言) 5언(言) 7언(言) 등으로 미괄(尾括)하는 예가 일반적이지만 3언(言)이라는 것을 희귀한 예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면(裏面)에 범어(梵語)와 진언(眞言)을 쓴 점도 보기 드문 예인데, 이는 주인공(主人公)이 출가자(出家者) 이상의 독실한 불교신앙자였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묘지(墓誌)의 주인공(主人公) 양택춘(梁宅椿)은 1172년에 나서 60세가 지나서 온수감무(溫水監務)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관직(官職)을 거쳤다.

60세 온수(溫水) 감무(監務)

72세 좌우위명사참군사(左右衛銘事參軍事) 경희궁부사(慶禧宮副使)

81세 호부원의랑사자어대수안궁부사(戶部員外郎賜紫魚堡壽安宮副使)

홍왕향감(興王鄉監)(판관(判官))

조정대부(朝請大夫) 예빈향(禮賓鄉) 치사(致仕)

위와 같이 그가 역임한 관직은 화려한 편은 아니고 그것도 늦게야 가졌던 직위였음을 알 수 있다. 양택춘(梁宅椿)에 대해서는 그의 묘지(墓誌)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그의 자(子)인 천영(天英)의 선승(禪僧)으로서 당시 정치실천자인 최우(崔瑀)에게 신임을 받았으므로 이에 힘입어 만년(晩年)에 더욱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천영(天英)의 비문(碑文)에서도 확인된다. 필사본으로 전하는 비문(碑文) 가운데 가장 충실한 것은 조계산송광사(曹溪山松廣

寺) 사고(史庫)에 실려 있다.<sup>5)</sup> 이에 의하면 부(父)인 양택춘(梁宅椿)이 산질(散帙)로서 낮은 관인(官人)이었으나 자(子)의 공에 힘입어 만년에 영달하였다고 밝혀져 있다.<sup>6)</sup>

묘지(墓誌)에는 천영(天英)의 형제(兄弟)에 대해서 자세히 실려 있다. 동생(同生)이 하나 있었으나 출가(出家)하였고, 이복동생(異腹同生)이 3인(人)인데 첫째는 역시 출가하고 나머지 형제는 어리지만 관직을 받았는데, 이는 천영(天英)의 음(蔭)이었다고 밝혀져 있다. 고려의 음서제도에 형(兄)의 음(蔭)으로 관직을 가지는 사례는 없었으나 권신(權臣)의 집권 아래서 승려의 세속과의 관계가 밀착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천영(天英)이 주지했던 단속사(斷俗寺)와 쌍봉사(雙峯寺)는 앞서 최우(崔瑀)의 열자(孽子)인 만종(萬宗)과 만전(萬全)(후(後)의 최항(崔沆))이 주지하면서 관곡(官穀)을 사채(私債)로 사용하여 이자(利子)를 축적하여 최씨집권의 경제기반을 형성하였던 곳이었다.<sup>7)</sup> 천영(天英)의 활동을 최씨집권(崔氏執權)과 야합하였으므로 비판될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양택춘(梁宅椿)의 관직우대와 천영(天英)의 신임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묘지(墓誌)와 비문(碑文)을 이용하여 비교하기 쉽도록 연보(年譜)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5) 許興植 <高麗時代의 새로운 金石文資料> 《大邱史學》 17,

6) 考諱宅椿 志趣高尚 以散帙居桑梓 喻從心矣 及師被超赴禪源 高廟徵之輩下 不數年間 累官至禮賓卿 致仕

7) 《高麗史》 卷 129, 列傳 崔沆

양택춘묘지(梁宅椿墓誌)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國師) 천영(天英) 연보(年譜)
1172년(명종(明宗) 2년) 출생(出生) 1231년(고종(高宗) 18년) 60세 온수군감무(溫水郡監務)	1215년(고종(高宗) 2년) 출생(出生)
1241년(고종(高宗) 28년) 70세 좌우위록사참군사 (左右衛錄事 參軍事) 경희궁부사 호부원외랑 자금어대 (慶禧宮副使 戶部員外郎 紫金魚袋)	1236년(고종(高宗) 23년) 22세 승과급제(僧科及第)
수안궁부사(壽安宮副使) 흥왕도감판관(興王都監判官)	1246년(고종(高宗) 33년) 32세 최우(崔瑀)가 창건한 선원사(禪源寺)의 법회에 참석.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됨.
조청대부 예빈경치사 (朝請大夫 禮賓卿致仕)	1248년(고종(高宗) 35년) 34세 선사(禪師)가 됨 단속사주지(斷俗寺住持)
1252년(고종(高宗) 39년) 81세 홍대(紅帶)를 하사(下賜)받음.	1249년(고종(高宗) 36년) 35세 선원사(禪源寺) 주지(住 持). 대장경간행 1251년(고종(高宗) 38년) 37세 최항(崔沆)은보제사별 원(普濟寺別院)의 법회(法 會)를 주관하게 함.
1254년(고종(高宗) 41년) 83세 4.7 졸(卒)	1252년(고종(高宗) 39년) 38세 선원사(禪源寺) 법주(法 主)로 삼음. 1256년(고종(高宗) 43년) 42세 수선사(修禪社) 주지. 대선사(大禪師)가 됨. 1259년(고종(高宗) 46년) 45세 충렬왕(忠烈王)과 원성 공주(元成公主)의 후원을 받음. 1286년(충렬왕(忠烈王) 12년) 72세 불대사(佛臺寺)에 서 입적(入寂). 국사추증(國師 追贈).

### 3. 몇 가지 주목할 사실

양택춘묘지(梁宅椿墓誌)를 통하여 몇가지 주목되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양씨(梁氏)의 기원(起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통설과는 다른 점이 정리된다. 성씨(姓氏)에 대한 공인(公認)된 사서(史書)라고 할 수 있는 증보문헌(增補文獻) 비고(備考) 제계고(帝系考)에서 양씨(梁氏)는 제주(濟州) 양을군(良乙那)의 후손(後孫)이라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의 대용을 취하였으나,<sup>8)</sup> 묘지(墓誌)에서는 계림(鷄林) 김씨(金氏)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보면 대성(大姓)의 예에서도 성씨(姓氏)의 기원에 대해서는 후대에 전(傳)을 수록하거나 이설(異說)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번 묘지(墓誌)로서 무신집권말(武臣執權末)에 이미 불교계(佛敎界)는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세속화(世俗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의 불교계는 몽고의 압제 아래서 정치세력과 가장 밀착되고 있어서 국사(國師)·왕사(王師)가 승정(僧政)을 장악한다

8) 《增補文獻備考》 卷50, 帝系考 11, 南原梁氏(古典刊行曾本, 上, p. 668)

든가, 독립된 관부(官府)를 설치하고 세속의 인(人)을 관료(官僚)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세속의 정치계와 마찰이 심해지고 몽고의 압제에서 벗어나 중흥정치를 꾀던 공민왕대에도 이러한 불교계의 경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돈(辛旽)에 이르러서 일반 국정 에까지 관여하는 등 세속과의 유착이 심하였다.<sup>9)</sup> 이러한 불교계의 속성은 어느 시대에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존재하였지만 특히 무신집권시대부터 비롯되지 않았는가 한다. 무신집권자의 하나였던 최이(崔怡)는 그의 열자(孽子)인 만종(萬宗)과 만전(萬全)을 조계종(曹溪宗)에 속한 사원으로 보내어 출가시켰고,<sup>10)</sup> 이들은 몽고의 침략을 비교적 적게 받았던 오늘날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관곡(官穀)을 사용하여 막대한 식리(殖利)를 취하였고 다음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체로 당시의 송광사를 중심한 조계종은 최씨집권의 후원을 받아 매우 번영하였는데, 이는 원오국사(圓悟國師) 천영(天英)에게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양택춘(梁宅椿)의 묘지에서도 조계종 5대(代) 주지인 자(子) 천영(天英)이 승려(僧侶)로서 입신(立身)하자 뒷따라 부(父)·형(兄)의 영화(榮華)를 복돋았던 사실로써 입증된다.

셋째로 본 묘지는 승려(僧侶)의 영달(榮達)이 가족(家族)의 문음(門蔭)에 영향을 끼친 특이한 사례로 중요시될 수 있다. 자(子)가 국사(國師) 또는 왕사(王師)로 책봉됨으로써 부(父)의 고향(故鄉)이 승격(昇格)되고, 부모(父母)가 봉작(封爵)된 예를 볼 수 있으나 천영(天英)보다 앞선 시기는 아니었다.<sup>11)</sup> 묘지에서 알 수 있듯이 천영(天英)은 승(僧)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자 부(父)의 관직이 승격되었을 뿐만아니라 제(弟)를 문음(門蔭)으로 입신(立身)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는 매우 특이하며 승(僧)이 제(弟)에게 문음(門蔭)의 혜택을 입게했다는 사례로는 아직까지 밝혀진 사례로는 처음 있는 것이다.

넷째로 양택춘(梁宅椿)의 자(子) 5인(人) 가운데 3인(人)이 출가(出家)하는 특수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초취(初娶)와의 사이에 2남(男)을 두었으나 모두 출가(出家)하였고, 재취(再娶)와의 사이에 출생한 3인(人)의 자식 가운데 첫째 아들이 출가하였다. 고려시대에 자식을 출가시키는 데에 4자(子) 가운데 1자(子)만, 또는 3자(子) 가운데 1자(子)만 출가하도록 법제(法制)가 있었으나,<sup>12)</sup> 이러한 금제가 문란한 예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5인(人)의 자식 가운데 2인(人)은 출가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법제에 저촉되지 않아서 인지 검토될 문제가 된다.

다섯째로 본 묘지의 주인공이 독실한 불교신자로서의 경건한 생활과 죽음에 이르러서도 승려에 못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의 불교신자로서의 깊은 신앙은 묘지의 형태에 있어서도 특이성을 보여 준다. 음기(陰記)에는 범자(梵字)로 상면(上面)에 새기고, 그 아래에 한자(漢字)로 상품상언진언(上品上言眞言), 육자대명진언(六字大明眞言), 보루각진언(寶樓閣眞言), 결정왕선정토주(決定往先淨土呪) 등이 새겨 있다. 이는 내세(來世)의 명복을 기원한 진언(眞言)(주술적 기도문)이라고 생각된다. 진언(眞言)과 범자(梵字)를 이해한 분의 재고(再考)를 요한다. 필자로서는 이와 같이 음기에 범자(梵字)가 쓰인 묘지(墓誌)를 본 일이 없다.

위와 같이 다른 묘지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과 특색이 지적된다. 이외에 피장자인 양택춘(梁宅椿)은 다비(茶毗)하는 장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고려 관인(官人)의 일반화된 장례의 절차이므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4월 7일에 사거(死去)한 후 며칠만에 화

9) 許興植<高麗時代의 國師, 王師制度와 그 機能> 《歷史學報》 67, 1975.

10) 崔瑀가 萬宗과 萬全을 出家시킨 時期는 정확히 알 수 없다. 萬宗의 改名인 沆이 집권한 시기는 高宗 35년 3월 (1248년)이므로 梁宅春과 天英의 전성시대와 일치한다.

11) 최초의 사례는 忠烈王 8년(1282년)에 國尊이된 普覺國尊 一然이었다. 《韓國金石全文》 1068 「考諱彥弼 不仕 以師 故贈左僕射」

12) 《高麗史》 卷 6, 世家 靖宗 2년 5월 辛卯. 《高麗史》 卷 8, 世家 文宗 13년 8월 丁亥

장(火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사후(死後) 77일만에 매장(埋葬)하였다. 이와 같이 화장(火葬) 후에 수골(收骨)하고 이를 골호(骨壺)에 모시고 상식(上食)한 다음 복장(復葬)의 형태는 고려시대의 관인(官人)에게서 새삼스러운 예는 아니다.<sup>13)</sup>

본 묘지의 지식(誌石)의 왼쪽 하단(下端)에 풍화가 약간 있어서 이 부분에 쓰인 찬자(撰者)의 이름이 뚜렷하지 않다. 필자는 이를 김구(金丘)로 판독하고 그의 행적을 조사해 본 결과 틀림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김구(金丘)의 현존하는 문집(文集)은 근세에 후손이 동문선에서 시문(詩文)을 옮기고, 연보(年譜)를 작성하여 부록한 것으로 지포집(止浦集)의 원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김구(金丘)의 시문(詩文)으로 만덕사지(萬德寺志)와 호산록(湖山錄)에서 지포집(止浦集)에 빠진 작품이 있으므로 동문선(東文選)과 현존 지포집(止浦集)을 대조한 결과 후대(後代)의 의작(擬作)으로 여겨졌다. 이번에 양택춘묘지(梁宅椿墓誌)도 본래 지포집(止浦集)에는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조선후기에 후손의 손으로 편집된 고려시대인의 문집은 주의를 가하면 쉽게 판별 할 수 있다.

비문(碑文) 글씨는 봉선찬(奉宣撰)의 비문(碑文)과 달리 찬자(撰者)의 동일한 예가 많다. 따라서 이 묘지는 김구(金丘)의 필적(筆跡)이라 생각되며, 그의 현존하는 유일한 필적이 아닌가 한다. 경직화된 고려전기의 구양순체(區陽詢體)에서 탄연(坦然)이후 고려인의 특징있는 필체가 확립되었고, 부드럽고 유연한 13세기 중기의 일반적 서체 가운데 뛰어난 보기가 되겠고, 서예사에서 귀중하게 취급할 하나의 사례가 증가된 셈이다.

묘지(墓誌)의 주인공인 양택춘(梁宅椿)은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므로 그의 재산인 노비(奴婢)를 출가(出家)한 자(子)에게 시납(施納)하였음이 현존하는 고문서(古文書)에 의하여 확인된다.<sup>14)</sup> 이 노비(奴婢)가 출가(出家)한 자(子)에게 상속할 몫의 노비(奴婢)인지 아니면 신앙행위의 일부로써 기진(寄進)된 예인지 뚜렷하지 않으나, 본 묘지의 발견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될 가능성이 커진다.

묘지에 의하면 장지(葬地)가 수양산록(水陽山麓)이라 하였다. 이 묘지가 발견된 위치는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동탄면(東灘面) 신리(新里) 산(山) 65번지이므로 이 지역의 옛지명을 밝히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묘지가 몽고의 침략이 심하던 13세기 중반기에 강화로 천도한 시기에 관인(官人)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귀중하게 이용될 수 있다. 몽고는 3차침입이후 약 15년간 소강(小康)상태였으므로 이때 강화의 관인들이 강화를 건너 주변의 대륙에도 묘(墓)를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로 개경부근에서 고려전기의 묘지가 발견되는 예와는 차이가 있으며, 몽고침입으로 개경 이외의 지역도 묘지로서도 사용된 예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의 중요성, 그리고 지방 중소지주인 호장층(戶長層)의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맺 음 말

이 논문에서 1172~1253년을 살았던 양택춘(梁宅椿)의 묘지(墓誌)를 새로운 자료로 소개하고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양택춘(梁宅椿)은 남원양씨(南原梁氏)로 수선사(修禪社)의 5대(代) 주지(住持)였던 원오국사(圓悟國師) 천영(天英)의 부(父)이다. 이 묘지(墓誌)는 화성군(華城郡) 동탄면(東灘面) 신리(新里)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묘지와 마찬가지로 양택춘(梁宅椿)의 생애(生涯)와 처자(妻子)가 실려 있으나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사조(四祖)의

13)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81 pp. 434~436.

14) 寶物 指定番號, 572, 현재 松廣寺博物館에 현존하고 있다.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이는 그가 지방(地方)의 향리출신(鄉吏出身)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양택춘(梁宅椿)은 60세에 온수군(溫水郡) 감무(監務)를 시작으로 관력(官歷)을 거쳤으나 그의 자(子) 천영(天英)이 선원사(禪源寺)의 후원자가 된 최이(崔怡)·최항(崔沆)의 집권시기에 우대됨으로써 택춘(宅椿)의 관직(官職)이 승진되고 다른 자식들까지 관인(官人)으로 입사(入仕)하게 되었다. 실권자와 불교계가 밀착되고 있는 좋은 예로서, 고려후기로 접어들면서 정교분리(政教分離)의 형태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묘지는 김구(金丘)의 찬(撰)·서(書)로 추정되며 서예사(書藝史)에 있어서 하나의 뚜렷한 사례가 되리라 추측된다. 또한 개경부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묘지로서 강화로 천도하여 몽고와 저항하던 시기에 지방사회의 중요성을 예고하는 시대전환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묘지는 원오국사(圓悟國師) 비문(碑文)과 현존하는 송광사의 노비문서(奴婢文書)와 대조함으로써 보다 철저히 이해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주인공의 생활 태도와 당시 사회의 여러 면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자의 시야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이용될 것이다.